

일본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 활발한 활동 전개

진 흥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국내 중전업체 10여개 등 총 12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일본 전력기자재 수출촉진단(단장:김준철)」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다.

금번 방문은 작년 일본과의 수출이 228,912천불로 중국, 미국에 이은 제3의 수출국가이면서도, 수입은 794,051천불로 중국에 이어 제2의 주요 수입국가로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일 무역수지 개선, 시장조사, 수출활성화 및 SIEF 홍보 등을 위해 한국전력공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진흥회에서는 나고야와 동경지역에서 현지 전력회사 및 전기관련 업체와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일본 전기요금의 자유화에 따른 원가절감 및 한국산 전력기자재에 대한 관심고조를 발판으로 해외에서 전력기자재의 조달을 원하는 일본의 바이어 및 전력회사로부터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특히, 진흥회에서는 일본 현지 KOTRA에 「전력기자재 일본시장 진출방안」이라는 용역조사를 의뢰하고 “일본 전력기자재 시장동향, 진출전략, 기업별 조달전략 및 해외조달 관심품목” 등을 사전·조사하여 참가업체에 배포하는 등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문의: 통상전시팀)

제9차 중전기기 협력위원회 개최

진 흥회는 지난 7월 18일 진흥회 회의실에서 소속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전기기 업계 주요 현안사항인 「노무단가 적용기준 개선」, 한전의 「재인정시험에 따른 시험비용 등 업계 부담조건 개선」 및 「물품구매 특수계약 조건 개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중전기기 제작사와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산출되는 노무단가와 의 현저한 차이로 인한 원가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기업 3사(LG산전, 효성, 현대중공업)를 중심으로 「중전기기 노무단가 적용기준에 관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또한, PL법 및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한전의 발전계약비용에 대한 물품구매 특수계약 조건 개정에 대하여는 한전 자체내에서도 원인규명, 책임범위, 보상한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더라도 계약자에게 제약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 소지가 있음에 따라 한전에 재검토 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였다.

한편, 지난 5월 한전에 재인정시험에 따른 시험비 지원 및 유예기간 연장 건의에 대하여는 국내 제조업체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전 구매시방서를 국제수준화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체에서 시험비용을 부담하며 유예기간도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인정 시험항목 최소화 등의 제조업체에 대한 시험비용 경감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문의: 기술진흥팀)



제6기 중전기기 수출전문인력 양성교육 개최

진 흥회는 지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1박 2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20여개사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전업계 수출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번교육에서는 FTA 체결 및 WTO/TBT 등 세계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향후 중전산업의 수출방향 제시를 통한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전기기 수출전문가 양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하우 제공과 수출담당 실무자간의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하였다.

(문의: 통상전시팀)



제2차 부품·소재통계 구축사업 WORKSHOP 참석

진 흥회는 지난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1박 2일) 지난 1차년도 사업수행에 이어, 내실있는 사업수행, 통계업무 참여자의 업무능력 배양 및 동 사업에 대한 참여의식 도모를 위해 통계청 통계연수부에서 열린 「제2차년도 부품·소재통계 구축사업 WORKSHOP」에 참석했다.

금번 워크샵에서는 ▶통계지표 및 경기동향 실무(통계청 윤명준 사무관) ▶ 부품·소재산업정책(산자부 조주영 사무관) ▶부품·소재통계 구축사업에 대한 토론 ▶ 1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및 2차년도 사업 추진내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의:정보조사팀)